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조용삼 베드로

(? - 1801)



경기도 양근에서 태어난 조용삼 베드로는 일찍이 모친을 여의고 부친 슬하에서 자랐다. 그러나 집이 가난한 데다가 몸과 마음이 약하고 외모 또한 보잘것없어 서른 살이 되도록 혼인하지 못했다. 그는 부친과 함께 여주에 사는 임희영의 집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를 만나 천주교 교리를 배웠다.

1800년 4월 15일, 아직 예비 신자이던 조용삼은 주님 부활 대축일을 지내기 위해 부친과 함께 여주 정종호의 집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이중배 마르티노, 원경도 요한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혹독한 형벌에도 굴하지 않던 그였지만 '배교하지 않으면 부친을 당장 죽여 버리겠다.'라는 협박에 굴복하였다. 그렇게 석방되었는데, 관청에서 나오던 길에 이 마르티노의 권면을 듣고는 다시 마음을 잡고 돌아가 신앙을 고백하였다. 이후, 그는 신앙을 굳건히 지켰고, 1801년 3월 27일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 형벌 땀 박해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하늘에는 두 명의 주인이 없고, 사람에게에는 두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천주를 위해 한 번 죽는 것뿐이며, 다른 말씀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의정부교구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신심 미사

소리 주보



입당송

이 성인은 하느님의 법을 위해 죽기까지 싸웠으며, 악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않았네. 그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네.

제1독서

2역대 24,18-22

화답송

시편 31(30),3ㄷㄹ-4.6과 7ㄴ과 8ㄱ.17과 21ㄱㄴ(◎6ㄱ 참조)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

○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소서. ◎

제2독서

로마 5,1-5

복음 환호송

마태 5,10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마태 10,17-22

영성체송

마태 16,24 참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넘쳐흐르는 시내처럼”



우기 중 와디

이사 66,12에는 “예루살렘에 … 민족들의 영화를, 넘쳐흐르는 시내처럼 끌어들이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위치와 그 주변 지형을 떠올리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시내”는 일명 ‘와디’로 알려진 곳인데요, 보통 때는 말라 있지만 우기에 비가 내리면 일시적으로 시내가 되어 흐르는 계곡을 말합니다. 이런 와디는 우리말 성경에 “마른내”(민수 34,5 등)로도 옮겨지는데, 보통 때는 말라 있어 어찌 보면 사막의 신기루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느님을 “가짜 시냇물”(예레 15,18)이라 칭하며 자신의 고통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느님을 생수의 원천이라 가르치지만, 이때 예레미야는 자신이 백성의 미움을 받아 구원을 청하는데도 주님께서 당장 구해주시지는 않으니 신기루와 다름없다고 한탄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예언자들이 하느님은 당신 백성에게 재앙을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며 태평성대를 예고한 것(예레 6,14; 14,13 등)과는 달리, 홀로 짓궂음에 따른 혹독한 심판을 전달함으로써 따돌림을 받게 되었으니, 자신이 듣는 목소리가 하느님의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자신을 박해하는 이들의 변명이야말로 가짜 시냇물, 와디 같은 환상임을 인식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이사 66,12의 배경은 우기입니다. 빗물이 넘치게 흘러 광야에 홍수를 일으키는 강과 같은 “시내”가 언급됩니다. 예루

살렘은 해발 고도 700~750m 정도에 자리해 있고, 해 뜨는 방향으로 광야를 따라 30km가량 가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점, 곧 수면이 해저 400m 정도인 사해가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고도 차가 1km 이상 나는 셈이지요. 그래서 우기에는 예루살렘의 빗물이 큰 시내가 되어 광야를 휩쓸고 마지막에는 사해로 들어갑니다. 곧 이사 66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민족들의 영화를 마치 홍수처럼 향유하게 되리라는 예고, 다시 말해 세상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되어 예물을 들고 홍수처럼 예루살렘을 찾아와 찬미하리라는 예언이었습니다.

홍수 같은 와디의 시냇물은 예언자 예제키엘이 전한 ‘사해의 부활’(예제 47,1-12) 신탁도 실감나게 그려보게 합니다. 생명력을 지닌 성전수가 큰 강처럼 되어 사해(死海)를 살아나게 하고, 지나는 광야마다 기름지게 변화시키리라는 예고입니다. 이런 사해의 부활은 기원전 6세기 바빌론에서 유배 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적절한 메시지였는데, 당시 고향에서 끌려간 유대인들은 마치 죽음의 바다에 빠진 듯 희망을 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사해는 무덤 같은 유배살이를 암시하는 장소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용서하시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성전에서 솟아난 생명수를 통해 이스라엘을 도로 살아가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생명수의 신탁이 전하는 바처럼 ‘오늘도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자비가 강물처럼 넘쳐흐르기를 빕니다.’ 🌊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로마 16,5)

교구대회 홈스테이

교구대회(Days in the Diocese, DID)는 세계청년대회(WYD) 본대회에 앞서, 개최국의 여러 교구에서 열리는 공식 프로그램입니다. 이 행사는 전 세계 청년들이 지역 교회와 만나 그곳 문화를 경험하고 저마다의 신앙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대회 참가자인 청소년과 청년은 본대회에 들어가기 전, 이 시간을 통해 더 친밀하게 한국의 자연·역사·문화·종교 유산 등을 체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들이 머무는 ‘홈스테이’ 가정에서 받는 환대와 친교를 통해 하느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홈스테이의 궁금한 점들에 관해서는 QR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스테이 후기

2023년 리스본 WYD 참가 이후, 포르투갈을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따뜻함입니다. 의정부교구의 청년 순례단이 한국에서 출발한 지 30여 시간 만에 도착한 포르투갈의 포르투 교구, Penamaior라는 작은 마을에서 받았던 성당 신자들의 환대는 큰 놀라움과 감동이었습니다. 늦은 밤 지친 우리를 맞이해준 그곳 가족들의 환호와 아름다운 미소는 홈스테이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저와 한국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고, 언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한 마음을 주고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나의 포르투 집이 되어준 소피아 가족을 통해 WYD의 여정을 하느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기쁨 속에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이제는 또 하나의 ‘가족’이 된 이들과 SNS로 소통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황지형 세라피나 (녹양동 성당,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참가자)



C-Stay*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하느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으로 깊은 유대감을 느끼며 낯선 이들과 한 가족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리스본 WYD에서 의정부교구 청년들의 가족이 되어준 포르투갈 모녀를 이번에는 한국에서 저희 가족이 맞이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아이들의 기도에 감동하고 한국 문화를 즐기며 첫영성체 미사에도 함께한 우리는 국경을 넘는 사랑과 연대를 나누었습니다. 2027년 재회를 기약하며 나는 포용은 하느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홈스테이 호스트의 경험은 하느님 안에서 맺어지는 영적인 가족애를 저희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전창엽 사도요한 (주엽동 성당, 2024 C-Stay 홈스테이 호스트)

* 가톨릭 홈스테이. 의정부교구 청소년사목국에서 주최하는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

매듭풀기의 지름길을 알려주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생전에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를 자주 바치며 우리도 함께 기도할 권하셨습니다. 자신과 가정 그리고 세상 어려운 이들을 위한 매듭풀기 기도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지요. 그래서 저도 이 기도를 오랫동안 바치며, 저와 가족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를 비롯하여 인간관계에서 주고받은 감정의 매듭과 하느님과 사이에 묶인 매듭을 풀기까지 참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기도가 열매를 맺어 4년 전 책으로 출간되었고, 어느 수도회 신부님의 도움으로 영광스럽게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책을 헌정하였습니다.

제가 마주한 첫 번째 매듭은 분노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만의 고집스러운 신념을 스스로 강요하며 살았습니다. 병고로 주저앉을 뻔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족의 안위에만 신경을 쓰며 저에겐 무심했던 탓에 원망의 마음도 거세졌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닌 제 스스로 묶은 분노와 원망의 매듭이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했지만, 믿는 마음으로 교황님께서 바치셨다는 매듭풀기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러던 중 제 안에 감정 쓰레기통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그저 참기만 하면 좋은 줄 알고 억눌러왔던 겁니다. 제 감정인데 제대로 읽어주기도 어렵거니와 어떻게 건강한 방법으로 발산하고 다스려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그 부리를 알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원인이 없는 매듭은 없을 테니까요. 어느 날 기도하던 중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대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 봐, 괜히 말해서 관계가 단절될까 봐, 감당치 못할 죄책감에 빠질까 봐... 이런 걱정을 하면서 불편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듯 습관적으로 제 안에 밀어 넣은 분노와 원망은 결국 원치 않는 때, 원치 않는 방법으로 발산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매듭을 풀기는커녕 하나를 더 꼬아 묶으며 관계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책을 교황님께 헌정하면서 동봉한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교황님께서 권한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소중한 체험을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온 가족의 상처와 기억이 치유되어 편안해졌습니다. 저희는 그 힘으로 더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황님께서 저희에게 매듭풀기의 지름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책을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바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때를 회상하니 하느님과 성모님께 아이처럼 의탁하셨을 교황님이 더 그립습니다.

“저희는 스스로 죄악을 씻을 수도, 매듭을 풀 수도 없는 가련한 존재이오니, 오직 당신(매듭을 푸시는 성모님)만이 저희를 묶고 있는 악의 매듭을 풀어주실 수 있나이다”(교황 프란치스코). ☸



교구
소식

의정부교구청 청소년사목국 직원 모집 - 육아휴직 대체

업무 가정사목부 업무 및 청소년사목부 업무 등 자격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근무 2025년 8/1(금) ~ 2026년 12/31(목) 접수 7/13(주일)까지, 이메일 youth@uca.or.kr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본당신부님 추천서, 졸업증명서
문의 031-850-1456 청소년사목국

청년 센터 <에피파니아> 7월 프로그램

Hope Stay 피정 7/11(금) 20시, 바오로딸 수도회 진행
기도모임 7/12(토) 14시, 노틀담 수녀회 진행 [총4회]
실천교리 피정 7/19(토) 19시, 노틀담 수녀회 진행
문의: 의정부교구 청소년사목국 카카오톡채널

※ 신청과 내용 안내는 의정부교구 등록시스템을 확인해주세요.



2025년 신앙교육원 여름 계절학기

일시 7/23~8/27, 매주(수) 19:30~21:40 [6주간] 장소 신앙교육원 본원 (의정부)
대상 신앙교육원 졸업생 및 재학생 모집 선착순 100명 (대면)
회비 12만원 (대면/비대면 동일) 강사 송혜경 박사, 강지숙 박사, 주원준 박사
문의 031-850-1545, 010-5578-4898 ※ 영상 강의는 누구나 신청 가능, 홈페이지 sd.uca.or.kr/set 참조

의정부교구 제149차 ME 주말

일시 7/25(금)~27(주일)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
대상 3년 이상 혼인생활 중인 부부 문의 010-9504-0419 ME주말분과 대표

백석농아선교회 수어미사

일시 7/27(주일) 16시 장소 백석동 성당 소강당
주례 김종민 하비에르 신부 문의 010-2093-4519 백루시아

제36차 의정부교구 약혼자주말

일상의 긴장에서 벗어나 짝공과 함께 이해, 일치, 사랑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일시 8/29(금) 19시 ~ 31(주일) 16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시 한빛로 21)
대상 예비부부,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문의 031-850-1458 가정사목부 신청 ▶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7/11(금)까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정종현 프란치스코, 김희영 소화데레사 문의 031-850-1507 (주말, 공휴일 휴무)

전신자 성경 읽기 7/6(주일)~12(토) : 요한 11,38-57 7/26(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헌금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순저금통

올해 사순저금통을 통해 113,332,460원이 모여졌습니다.

결과 보고

(본당 및 기관 109,717,300원 / 개별입금 1,658,160원 / 가톨릭페이 1,957,000원)

이는 의정부교구 사회복지회로 보내져 여러 사회복지 활동에 사용될 것입니다.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7/11(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찬양과 치유기도회
문의: 010-2127-0032

3·4지구 성령기도회 영성 피정

일시: 7/11(금) 13~16:30 (강의, 미사, 안수)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대성전
강사: 윤민재 베드로 신부 (수원교구)
문의: 010-3790-0496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7/12(토) 10시, 풍동 성당
7/19(토) 10시, 주교좌 의정부 성당
문의: 02-3673-2525

김성기 안드레아 신부 초대전 오픈 미사

일시: 7/13(주일), 도가헌미술관
주제: The Door 김성기 안드레아 신부 초대전 (예수회)
전시: 7/13(주일)~9/14(주일)
문의: 010-3640-9745
031-281-9745 도가헌미술관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험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제주성지순례(추차도포함): 9/7(주일)~10(수), 9/18(목)~21(주일), 10/25(토)~28(화)
여름피정(우도섬포함): 7/22(화)~24(목), 7/26(토)~29(화), 8/1(금)~3(주일)
문의: 064-796-4182, 02-773-1455

2025년 하반기의 순례, 제주 산들순례 피정

장소: 제주 면형의 집
내용: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8/8(금)~10(주일) 가정성화 프로그램
문의: 064-732-4702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7/18(금)~21(월), 7/25(금)~28(월), 8/15(금)~18(월), 8/22(금)~25(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 (수유동)
비용: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본당 출장피정 신청)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2일: 8/30(토)~31(주일), 9/27(토)~28(주일)
3박4일: 7/24(목)~27(주일), 8/21(목)~24(주일)
4박5일: 7/30(수)~8/3(주일)
8박9일: 7/10(목)~18(금), 8/7(목)~15(금)
40일: 10/14(화)~11/22(토)
장소: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구산 성지 신앙선조 영성피정

원수를 갚는 좋은 방법은?
주님 이름으로 참고 견딤이다.
일시: 7/12(토) 14시~18시 / 장소: 구산성지
내용: 성경직해 (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지도: 정종득 신부, 성가: 고영민 / 회비: 1만원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효소단식: 7/17(목)~20(주일), 8/4(월)~7(목)
성경완독: 7/25(금)~8/2(토), 8/15(금)~23(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시~16시,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내용: 7/8 김귀분 리나 수녀
7/15 성시간, 연도, 위령미사
담당: 김종국 신부
문의: 010-5514-4077 화장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집 피정

토요성모신심기도와 미사: 7/19(토) 10시~12시
바오로시간과함께하는대침묵피정: 7/24(목)~27(주일)
다네이영성수련(대침묵): 8/5(화)~7(목)
회복탄력성강화피정: 8/8(금)~10(주일)
문의: 02-990-1004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메주교리에 일일피정 및 7월 토요일 치유 대피정

메주교리에 기도 일일피정: 7/7(월) 10시~16시
7월 토요일 치유 대피정: 7/12(토) 12시~17:30
강사: 김성기 안드레아 신부 (예수회 호주관구)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미사, 안수, 중식무료)
문의: 010-3310-8826, 02-874-6346

인천교구 지혜의 샘 피정 프로그램

성모님께 33일 봉헌 5차 감사피정: 7/14(월) 10시~17시
강사: 이현중 신부, 한영임 회장
성경 본문 속 그리스어 기초문법 (무료 8주 과정)
일시: 7/7~8/25, 매주(월) 19시~21시
강의: 서한석 신부 (가톨릭대 학부대학장)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 지혜의샘 (중동역 5분)
문의: 010-3248-9705

전대사 은총과 함께 일일 피정

일시: 7/13(주일) 10시~16시 (09시 미사 참석가능)
장소: 스승예수제자수녀회 (4호선 미아역)
강사: 김 마리아 제수이나 수녀
주제: 목주기도 신비 묵상 (그리스도의 고통)
문의: 010-9742-3842, 02-984-4801

교육 · 모집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한국외방선교수녀회 zoom 성경통독

일시: 매주(목) 20시~21시
대상: 20~40세 미혼 여성
문의: 010-9353-1773

필리핀 캠프 수학 선생님 모집

업무: 청소년 인솔 및 생활관리
혜택: 영어연수경비 전액, 봉사인증서
대상: 7/12(토)~8/23(토) 출국 가능한 대학생
문의: 053-593-1273 대구가톨릭청소년회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025 인물명강(2)

일시: 8/6~27, 매주(수) 미사 13:20, 강의 14시~16시
8/6(수) 인생은 우울과 외로움: E.호퍼&A.와이어스, 이동욱 토마스 신부
8/13(수) 인생은 희망 없는 고통: F.칼로&K.콜비츠, 이동욱 토마스 신부
8/20(수) 미술 속 의학, 윤인복 교수
8/27(수) 미술 속 치유, 윤인복 교수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체칠리아홀
회비: 8만원 (선착순 75명)
문의: 02-6364-2204, 010-3781-2204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평내 성당 관리장 모집

인원: 1명 (계약직1년, 근무평정 후 정규직전환)
대상: 세례성사를 받은지 3년 이상인 교우
업무: 시설관리, 미화, 방호업무, 문단속
근무: 주40시간 내외 (주말근무 포함, 주중 1일 휴무)
제출: 이력서, 교적증명서, 주민신부님추천서, 자격증사본
접수: 7/31(목)까지, 우편접수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256번길 17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전화문의의 사절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의정부가르멜 여자수도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35세 미만 미혼 여성		010-8078-7016

사이버성경학교 **희년 이벤트**

전과목 50% 할인, 다양한 무료 콘텐츠
신청: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 365일 신청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시스피나 일산 합창단원 모집 - 혼성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지휘
그레고리오 성가, 모짜르트 대관식 미사 연주
문의: 010-9842-8818 (남성단원 환영)

예수회 센터 가을학기 강좌 - 9월 개강

월요피정(무료): 전례와 함께하는 기도
서구문화 속 그리스도교 미술
성경대학: 요한복음1
환시가 답하는 10가지 질문
구약성경 아카데미: 예언서 해설
성경장애와 영성생활
신의 선물, 음악의 희로애락
각 10~12주/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 02-3276-7733, center.jesuit.kr

피에타스 시니어 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성가, 합창 경험 있는 가톨릭신자
연습: 매주(화) 19:40, 정발산 성당
문의: 010-3330-3725 이경원 베드로 지휘자

안내 · 기타 ▶▶

청년과 수도자, 함께 숨을 고르다-오세요

날짜: 9/20(토)~21(주일) / 천안 청소년수련원
대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
신청: instagram.com/com2025oseyo
문의: 010-6880-9605 축성생활의 해 청년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하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문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 희년특집 해외 성지순례

9/1(월)~8(월) 멕시코 과달루페 (7일, AM항공)
9/1(월)~12(금) 벨기에~프랑스~스페인 (OZ항공)
9/17(수)~27(토) 알프스 지역 수도원 기행 (KE항공)
9/18(목)~10/1(수) 스페인 산티아고
200km 도보순례 (KE항공)
9/20(토)~10/1(수) 동유럽 4개국 (KE항공)
9/24(수)~27일(토) 일본 나가사키 (KE항공)
문의: 1551-1053, www.cpbctour.co.kr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9/22(월)~26(금) 베트남 중부 (140만원)
10/16(목)~27(월) 유럽 성모발현지 (510만원)
11/10(월)~21(금) 멕시코, 페루 (795만원)
11/18(목)~28(금) 희년 이탈리아 (450만원)
문의: 02-2281-9070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8(월), 10/20(월) 유럽 4개국 성모 발현지
(12일, 495만원)
10/14(화) 조지아, 아르메니아 (10일, 399만원)
10/13(월), 10/20(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69만원)
10/22(수) 이탈리아, 메주그리에 (11일, 495만원)
11/4(화), 11/12(수) 이탈리아 (11일, 국적기 직항)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고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수도원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상담자: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야외수영장 조기개장

주말개장: 6/6(금)부터 매주(금~주일)
상시개장: 7/18(금)~8/17(주일)
개인 및 단체 하루 이용 가능 / 그늘막, 주차 무료
문의: 031-840-0018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일시: 월~금, 10시~16시
내용: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문의: 02-990-9366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8/9(토) 희년 이탈리아, 프랑스 (11일)
9/17(수) 유럽 4개국 성모 3대 발현지 (12일)
10/9(목)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 (12일)
10/13(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10/28(화) 산티아고 도보 성지순례 (12일)
11/10(월) 희년 이탈리아 일주 (11일)
1/17(토) 멕시코 과달루페, 페루 (12일)
문의: 02-319-2533 가톨릭여행사

이태리 정기희년 성지순례

9/18(목) 이태리 성체기적성지 (9일, 아시아나)
지도: 이환규 안드레아 신부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멕시코 성지순례 - 9박10일

11/25(화)~12/4(목) 세계3대 성모발현지
그리스도레지오회 사제동행
문의: 02-732-4578 그리스도레지오회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8/12(화) 김대건. 최양업 신부님의 숨결을 찾아서
중국 장춘, 길림, 백두산 연길, 용정, 도문
(5일, 150만원)
10/8(수) 추석 특선 - 일본 나가사키 (4일, 160만원)
10/18(토) 알프스 주변 수도원 순례 및 성모성지
(12일, 560만)
11/7(금)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545만원)
12/4(목)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5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강의

월간성서 <7월호>

일정: 7/3(목), 10(목), 17(목) [총3회 업로드]
주제: 시편 139편의 인생론
강사: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
(작은형제회,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교 성서신학)

시청 ▶



행사

제30회 농민주일 기념미사 및 직거래 장터

일시: 7/20(주일) 11시 미사 (직거래 장터 09시~13시)
장소: 덕정 성당
주례: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문의: 031-850-1491 생태환경위원회

병오박해

오늘 의정부교구의 모든 본당에서는 교구 주보(主保)이자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신심미사를 봉헌합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는 1821년 8월 21일 충청도 솔피에서 태어나 1846년 9월 16일 새남터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체포로 시작되어 그 순교로 끝난 1846년 병오박해는 한국 천주교 4대 박해 중 하나입니다.

1839년 기해박해가 끝난 후, 한국 천주교회는 박해가 잦아들면서 대체로 평온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종이 기해년에 내린 교서 「척사윤음」(斥邪綸音)은 천주교 박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되었고, 이로써 언제든 박해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조선과 중국의 국경에선 감시가 심해졌기에, 외국 선교사들은 육로를 통해 조선에 입국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는 해로(海路) 개척에 나섰고, 마침내 1845년 10월 12일, 죽을 위험을 넘어 제3대 조선교구장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와 함께 충청도 강경 부근의 황산포 나바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들이 입국한 경로는 매우 위험하였기에, 페레올 주교는 1846년 봄이 되자 김대건 신부에게 장차 중국에 있는 매스트르 신부와 최양업 부제가 입국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바닷길을 개척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는 마포, 연평도, 백령도 등지를 항해하며 중국 어선과 접촉하고, 본인이 직접 그린 해로도(海路圖)와 편지를 중국에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5일, 순위도에서 배 주인 임성룡과 사공 엄수 등과 함께 체포되고 맙니다. 그리고 6월 10일, 해주 감영으로 이송되었다가 6월 21일에는 한양 포도청으로 압송되어 40여 차례 문초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병오박해로 인해 금위영의 군인이던 남경문 세바스티아노가 붙잡히고, 교우회장 현석문 가롤로를 비롯하여 한이형 라우렌시오, 우술임 수산나, 김임이 테레사, 이간난 아가타, 정철염 가타리나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성룡의 부친으로 훗날 옥에서 요셉으로 세례받는 임치백도 자수하여 붙잡혔습니다. 이밖에 많은 천주교 신자가 체포되었다가 배교하여 풀려나는데, 김대건 신부는 9월 16일, 새남터에서 26세의 나이로 군문효수형을 받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19일, 현석문도 군문효수형을 받아 순교하고, 그다음날 남경문과 임치백은 매를 맞다가, 한이형, 이간난, 우술임, 김임이, 정철염은 매를 맞은 다음 교수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1925년 7월 5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거행된 한국 순교자 79위의 시복식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바친 병오박해 순교자 김대건 신부와 평신도 8명은 기해박해 순교자 70명과 함께 1925년 7월 5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시복되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시성되어 성인품에 올랐습니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h2 style="text-align: center;">행 주 성 당</h2>  <p style="text-align: center;">성모몽소승천</p>	토 요 일	19:00 토요일 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주일 아침 미사 11:00 교 중 미 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 화, 수, 목, 금
sd.uca.or.kr/hjsd1909	홈 페 이 지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05일: 이용부 대건안드레아
11일: 최광민 베네딕토

■ 성당 마당 보도블록 교체 공사 비용 정산 안내

보도블록 자재 비용 : 12,463,000원
보도블록 시공 비용 : 17,650,000원

■ 성당 마당 보도블록 교체 공사에 도움 주신 분
6월 23일부터 6월 29일 까지

손미정 아가다 1,000,000원	박준호 요셉 300,000원
양경희 루시아 1,000,000원	장직수 시몬 100,000원
한동욱 돈보스코 300,000원	권혁초 데레사 200,000원
김성태 베드로 100,000원	익 명 300,000원
박광배 베드로 1,000,000원	유윤재 로사 100,000원
신석웅 바오로 1,000,000원	류은희 소피아 1,000,000원

※ 보도블록 교체 공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의 정성이 본당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당공지

■ 손희송 베네딕도 교구장님 행주 본당 사목방문

일 시: 7월 8일 화요일 오후 6시
교구에서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본당 사목방문을 위하여 교구장님께서 행주 성당을 7월 8일 화요일에 방문하십니다. 방문 시간은 오후 6시이나 본당 신자들의 환영식은 오후 7시 30분에 하오니 시간이 되시는 교우 분들께서는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 본당 사목협의회의

일 시: 7월 20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남성 레지오 단원 모집

본당 남성 레지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레지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연락처: 이은혁(마태오) 010-2284-6759

우리들의 정성 (6월 23일 - 6월 29일)

교 무 금 5건	340,000원
주 일 헌 금	1,071,000원
교황 주일 2차 헌금	570,000원

■ 교중 미사 주송자, 예물 봉헌 담당

07월 06일	주송자	신은석(안젤라)
	권우석(라파엘), 정윤정(라파엘라)	
07월 13일	주송자	전옥자(수산나)
	최성권(야고보), 김민숙(골롬바)	